

“당신네 사료쓰면 유지율 올라갑니까?”

정 부 진

한일사료(주) 마케팅부 차장

우리나라 유대 계산방식은 유지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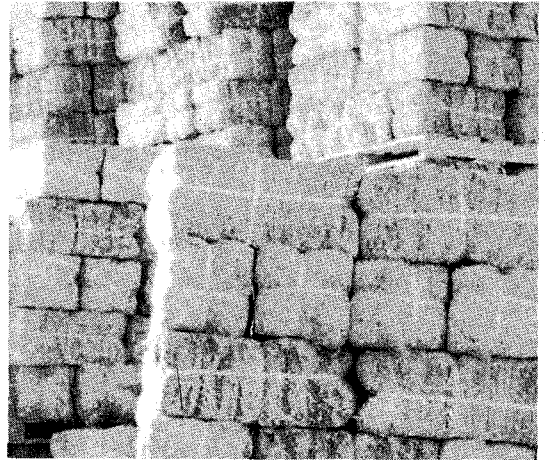
유지율의 높고 낮음에 따라 우유값 즉 목장 수입이 변하기 때문에 당연히 낙농인들은 유지율에 관심이 매우 높다. 따라서 유대전표를 받으면 맨 먼저 보는 것이 유지율이다.

이렇게 중요한 우유내 지방율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왔다갔다 하는 것인가?

유지율은 조사료가 좌우한다

우유내 지방의 절반 이상은 제1위 내에 있는 미생물들의 발효에 의해서 생성된 초산과 낙산으로부터 합성되며 나머지는 사료중의 지방 및 미생물체의 지방으로부터 유래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젖소의 반추위의 산도(pH)가 적당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초산과 낙산이 많이 생산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보고와 기술자료들은 유지율을 높이는 여러가지 방법들을 발표해 왔다.



▲ <조사료 없는 낙농은 있을 수 없다 배합사료를 바꾸기 전에 조사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중에서도 빠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추위내의 산도 즉 pH를 산성으로 만들지 않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사료를 많이 급여해야 한다. 전체 급여사료중 건물기준으로 60%를 조사료로 급여할때 유지율이 가장 높다고 발표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 실정은 어떤가?

엔실리지나 청초가 있으면 매우 양호한 수준이고 대부분은 벗짚뿐이다. 이렇게 배합사료와 벗짚만을 급여하는 목장의 조사료 급여비율이 20%내외로 이 상적인 급여수준인 60%와는 너무나 차이가 많다. 이런 상태에서 높은 유지율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벗짚과 배합사료만 급여하는 목장의 유지율이 4.0인데 자신은 부산물과 풀을 많이 주는데도 유지율이 3.3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불만인 낙농인이 있다. 벗짚과 배합사료만을 급여하는 목장의 유지율이 높은 이유는 그만큼 유량이 낮기 때문이다. 유량이 많으면 유지율이 낮고 유량이 적으면 유지율이 높은 것은 젖소의 생리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특히 이런 목장은 급여하는 사료가 거의

일정하고 사양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와같이 배합사료와 볏짚만을 급여하는 목장에는 다른 조사료를 더 주고 또 볏짚도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절단이나, 처리를 함으로써 유량을 늘이는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

근년에 들어 목장인근의 산과 들에 풀들이 수북히 널려 있는데도 귀찮다는 이유만으로 베어 먹이는 노력을 하지 않는 낙농인들을 쉽게 만나게 된다. 사료작물을 심을만한 땅이 있는데도 그냥 버려져 놓은 경우도 허다하다. 실제로는 이렇게 하면서 유지율을 3.7% 3.8%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터무니 없는 욕심이 아닐 수 없다.

억지도 이제 그만

“지금 지방이 3.2밖에 안 나오는데 당신네 사료 쓰면 지방 올라갑니까?” 유지율만 올라간다면 사료가격, 거래조건등 모든 것을 감수하고 사료를 바꾸겠다는 태도다.

한마디로 말해서 착유사료는 A사료나 B사료, C사료가 거의 비슷하다. 한포대의 착유용 사료에는 옥수수등 곡류와 곡물의 깻질인 강피류, 각종 광물질과 기타 첨가제등이 엇비슷하게 들어간다.

거의 모든 착유용 사료에는 두·세가지의 버퍼제도 필수적으로 배합되어 있다. 또한 사료의 성분인 단백질, 지방, 칼슘, 인등의 함유량도 같고 거의 비슷한 원료를 사용한 연유로 조섬유 함유비율도 거의 동일하다.

이 비슷한 사료를 급여한다고 유지율이 변한다는 것은 젖조의 생리특성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유중 지방율이 크게 떨어지거나 올라가는 것은 배합사료 때문이 아니다. 자급사료등 조사료의 질과 양 그리고 사양관리의 잘잘못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특히 유지율이 급격히 내려가는 것은 영양부족에 의한 대사기능의 불량과 급격한 사료변경으로 위내

미생물 발란스가 깨진 때문이다.

이런 목장은 배합사료가 아니라 사양관리 즉 적절한 조사료 급여와 영양관리 측면에서 문제점을 찾아 시정하면 100% 유지율을 끌어 올릴 수 있다.

“당신네 사료를 먹었더니 지방이 올라갔어”

이말은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일 뿐이다.

기본에 충실하자

우리나라의 유대계산 방식에 문제가 크다. 우유내에 단백질이나 미네랄등 무지고형분이 사실은 더 중요하고 세균수가 적은 우유를 목장에서 생산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이러한 방향으로의 원유가격 정책이 바뀔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현실로 돌아와 당장에 지방이 많이 함유된 우유를 생산해 낙농수익을 높이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조사료를 가능한 많이 급여한다.」

「수분이 많은 사료는 수분을 상당량 제거하거나 건조한 사료와 함께 급여한다.」

「사료를 급격히 바꾸지 않는다.」

「후착유를 실시한다.」

「농후사료 급여전에 조사료를 급여한다.」

이상과 같은 기본원칙에 덧붙여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첫째 젖소가 영양부족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사료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배합사료에는 기본수준의 버퍼제밖에 함유되어 있지 않으므로 배합사료(농후사료)급여량에 따라 추가적으로 버퍼제(완충제)를 급여해야 한다.

노력없이 좋은 결과는 나오지 않는다. 소의 생리에 맞게 사양관리하고 소에게 정성을 쏟는다면 그 소는 지방이 많이 함유된 우유를 펄펄 쏟아낼 것이다.